

프롤로그

-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공통분모다. 공통분모 그것은 교양 즉 인문학이다.

0. 진리

- 진리란 무엇인가 -

- 진리의 속성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함.
- 진리의 존재에 대한 태도 :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절대주의적 태도, 없다는 상대주의적 태도, 불가지론, 유용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실용주의(프래그머티즘) 태도가 있다.
- 그노시스(Gnosis) 파(1세기 무렵 민중사이에서 유행했던 종교)는 개인이 신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인간이 절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에서 불가지론이 시작되었다. 불가지론자들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인식적 한계로는 그노시스에 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진리의 역사 -

- 원시시대의 신은 자연신이였다. 원시인들에게 자연물과 자연현상은 신성함 그 자체였다.
- 고대 시대의 진리는 신화였다. : 그리스•로마신화의 등장은 그리스인 로마인에게는 실재하는 존재였다.
- 중세시대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등장하는 진리로서의 신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절대적 진리가 유일신의 옷을 입고 진리의 권좌를 차지한 것이다. 이 초월적 신은 현실에서 왕의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다.
- 중세 후기에는 새로운 생산수단으로서 공장을 소유한 부르주아가 등장하였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신적 기반, 즉 진리의 기준으로서 이성이 제시되었고, 신분주의의 중세가 무너지고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 근대에 이르러 진리의 왕자는 이성이 차지하였다. 이성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근본적인 학문을 의미한다. 수학, 물리학, 철학이 그것이다.
- 근대 합리성의 낙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으며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으로 붕괴되었다.
- 외적인 원인: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추구가 행복한 미래를 가져오지 않으며, 인류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인류는 충분히 경험하였다.
- 내적인 원인도 근대성의 붕괴에 기여했다. 내적인 원인이란 인간 이성의 한계가 학문 내부의 영역에서 스스로 드러난 것을 말한다.: 수학에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물리학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철학에서는 파이어벤트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이다.
- 제 1불완전성 정리: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 이론이 포함된 형식적 체계안에는 결정 불가능한 공식, 즉 그 자체로 증명이 불가능한 공식이 존재한다.
- 제 2불완전성 정리: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 이론이 포함된 형식적 체계의 무모순성은 해당 체계안에서는 증명될 수 없다.

- 수학은 절대적이고 완벽하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불완전성을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측정 가능해진 작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거대한 세계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 현대 물리학에 와서 과학자들은 소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물리학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다. 불확정성 원리 이후 과학은 더 발전해왔으며, 소립자의 불확정성은 무질서가 아니라 확률안에서 유의미하게 제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사에서의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과학에서는 합리적 이성의 검증으로 이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이거나 정치적인 시각 등 비이성적인 이유로 이론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학은 엄밀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우연적으로 성장해왔다.
- 우리는 과학적 방법이 아닌,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들로 과학을 발전시켜왔다. 합리적 이성의 기초는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충동이었던 것이다.
-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억압하는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트모던은 이분법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세계를 강압적으로 둘로 쪼갤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 근대 이성중심주의의 이분법적 폭력성, 사고의 경직성, 규율과 규칙, 질서의 불편함은 포스트모던의 도래와 함께 급격하게 무너진다. 포스트모던은 새로운 세계를 제사하기보다는 근대의 계획을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존에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가치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성운동, 인종차별 철폐, 학생운동 등의 정치, 사회운동과 함께 회화, 사진, 미디어, 패션에 이르는 예술, 문화적 운동을 등반했다.
- 68혁명은 1968년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일으킨 시위로 시작하여 기성세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권위적이고 계몽적인 학교와 국가에 저항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자신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에 반대했다. 또한 젊은이들은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에 반대하고, 인간적 가치의 회복과 사람들 간의 관계 회복을 꿈꿨다.
- 해체주의 건축은 비효율적이다. 둥근 형태를 띠거나 균형 잡히지 않아서 마치 무너질 듯하고, 공간을 낭비하여 비용을 증가시킨다. 물론 이러한 건축은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해체주의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축적 아름다움을 돌려주고, 질서와 효율로 숨 막히는 도시 속에서 우리를 사유하게 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 근대를 끝내고 현대 포스트모던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철학자 니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만약 네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네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해라.